

서울지역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권영복 제2대 회장 선출



서울지역종친회(회장 권영복) 제2차 정기총회가 12월 14일 12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식당 〈그집〉에서 권영복 회장을 비롯한 권정수 고문, 권오성 고문, 권오수 고문, 권오윤 부회장, 권지은 총무, 권오익 홍보부장, 권경탁, 권영일, 권혜숙 회원, 권형완 대종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겸 편집국장, 권기모 대종회 총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휘 사무국장의 사회로 거행되었다.

식순은 개회선언, 시조 태사공께 망배, 회장 인사, 내빈 소개, 임원 소개, 회장 선출, 감사 선출, 결산보고, 감사보고, 기타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영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낯지도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말하며 오늘은 회장 선출이 있는 만큼 유능한 인재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서울지역종친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빈 소개와 임원 소개를 했다.

권오성 고문은 서울지역종친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수 고문은 종친회가 양로원 집회장이 되어 간다. 어느 종친회나 마찬가지다. 60대가 회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모두 건강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모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한 권오청, 권오동, 권오복 등 세 명의 신규 회원을 소개했다.

다음은 회장 선출에 들어갔다. 임시회의 회장은 권정수 고문이 맡아

서 회의를 진행했다. 권정수 임시회장은 지역종친회 중 서울지역종친회가 제일 장 융화되는 것 같다. 회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제1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제2대 회장 선출을 해야 하니 회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오수 고문은 현 권영복 회장을 추천하며 한 번 더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추천자가 없는 관계로 참석자 모두 만장일치로 권영복 현 회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시회장은 권영복 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시 맡게 된 권영복 회장이 이 모임을 단단히 뿌리박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복 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다시 회장으로 뽑아 주셔서 고맙다. 회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 종친회가 발전한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권정찬 감사는 유임됐고, 신입 감사에는 권중우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이어서 권오익 홍보부장은 건배사에서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여 차기 총회에서는 회원이 50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말하고, 한 마을 한뜻으로 안동권씨의 무궁한 발전과 지역종친회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하자고 제의했다. 주최측에서는 탈력과 타월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형완 편집국장

좌윤공파, 파조부군(派祖府君)을 비롯한 칠위(七位) 추향(秋享) 봉행



좌윤공파 파조 부군을 비롯 11세 은정 광록대부 추밀공, 12세 정랑공, 13세 문과공, 14세 영가군, 15세 송록대부 고려 문하시중공, 16세 대광보국송록대부 좌의정 문정공 추향이 12월 3일 안동시 북후면 잣밭길 좌윤공파의 성지인 묘원 합제단에서 1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제한 가운데 봉행됐다.

2021년 코로나로 중단됐던 전일 임제 관습이 이번 추향부터 되살아나 연원재

사 6개 방이 후손들로 모두 찼다. 12월 오전 8시 파록, 분정, 10시 합제단에서 추향 봉행, 음복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돼 오후 3시 을사년 추향 행사가 끝났다.

초헌(初獻) 권오교(權五敎), 아헌(亞獻) 권영대(權寧大), 종헌(終獻) 권칠근(權七根), 축(祝) 권택관(權宅寬), 집례(執禮) 권경섭(權景燮)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송암선생 시(詩) 서예특별기획전



“하늘의 뜻을 깨닫고 즐기다” 2025안동서예인연합회전이 지난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경북도청 동라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학문과 덕을 삶으로 보여준 진정한 선비였던 송암(松巖, 諱:好文, 21世)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고, 선생의 사상과 어록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한자리에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

송암 권호문 선생은 북아공파 11개 계열의 4번째 지파조인 관서공(諱:鞠)의 6대손으로 문학의 지평을 넓힌 탁월한 문인으로 시가와 학문을 수양에 힘쓰며 많은 후학을 길러낸 참된 스승이었다. 이

러한 선생의 정신을 예술로 표현하고 널리 알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이야말로 안동의 정신적 뿌리를 간직한 정신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송암선생의 고향인 이곳 안동에서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특별전은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실천과 송암선생의 고귀한 문학적 정신과 예술적 감동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예술의 발전장으로 이어 나가리라 생각한다.

권오익 사무국장

동정

▲ 권순정 경인일보 기자가 제50대 인천 경기기자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신임 권 회장은 지난 2011년 경인일보 입사로 언론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방송보도부, 경제부, 서울정치부 등을 거쳤고, 현재는 지역사회부 차장이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 권흠대 에스포항병원 병원장이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권흠대 신임 회장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연

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연세대학교 의학대학원, 강남세브란스 척추전문병원 임상강사, 한강성심병원 신경외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권 회장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이사, 대한최소침습학회 이사, 대한척추변형연구회 이사 등 여러 학회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왔다.

▲ 권해미 주무관이 안동시가 선정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권해미 주무관은 안동시청 MZ세대로 개그우먼 이수지의 ‘햄부기 랩 - 섹시푸드(sexy food)’를 패러디한 ‘안동푸드 랩’ 커버 콘텐츠에 출연해 안동 특산품과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하루 만에 조회수 30만을 기록하고, 누적 조회수 23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안동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권오장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이 제39대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 회장 당선됐다. 권 회장은 교권침해 적극대응 및 법률지원 강화, 회원의 NEEDS를 반영한 복지확대, 현장중심 교총운영,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정책요구 등을 공약했다. 임기는 내년 1월1

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 권동수 수술포트 플랫폼 기업 로엔서 지철 대표이사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이사 회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로 IEEE 석학회원으로 승격됐다. 권대표는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에서 27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의료 로봇, 햅틱 인터페이스, 최소침습 수술 기술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세계 최초로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포트 ‘자메닉스(Zamenix)’는 권 대표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자메닉스(Zamenix)는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로 수술 정밀도와 환자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IEEE 석학회원 선정은 K-의료기술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 권중천 회장물산㈜ 회장이 신라대학교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술과 문화 발전, 그리고 지역과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권 회장은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출 활로를 개척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도 부산아시아계인 후원,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랑의 연탄 나누기, 지역 복지시설 식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제11회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경북 예천군 용문면이 고향이다.

▲ 권중두(47) 가천대학교 체육학부 교수(47)는 보디빌더이다. 지난 11월 23일 일본 도쿄 지하철 지바돔에서 열린 2025조 웨이더 올림피아 아마추어 재팬 월드챔피언십 마스터즈 클래식피지크 부문에서 정상에 등극했다. 권 교수는 2014년 호주 월드챔피언십 우승 이후 6년 전 은퇴했으나, 3년 전 무대에 복귀해 꾸준히 도전해 왔다. 이번 우승은 11년 만의 월드대회 우승이지만 그보다 복귀 후 일곱 번의 도전 끝에 거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현재 디렉스 챔피언십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謹 賀 新 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00만 죽친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파종회장협의회는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顧問：權啓東(僕射公派), 權奇德(僕射公派), 權奇浩(僕射公派)

會長：權重根(侍中公派宗會 會長)

副會長：權奇秀(別將公派宗會 會長)

監事：權純福(正朝公派宗會 會長)

事務局長：權奇胤(副戶長公派宗會 副會長)

會長團

宗派宗會 會長 權虞瑛	副戶長公派宗會 會長 權憲宗	樞密公派宗會 會長 權五敦	僕射公派宗會 會長 權寧祥
同正公派宗會 會長 權寧俊	佐尹公派宗會 會長 權五信	別將公派宗會 會長 權奇秀	副正公派宗會 會長 權孝俊
侍中公派宗會 會長 權重根	給事中公派宗會 會長 權旭炯	中允公派宗會 會長 權寧鐸	軍器監公派宗會 會長 權奇洪
正朝公派宗會 會長 權五吉	戶長公派宗會 會長 權丙燾	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泰錠	

새해 元旦 安東權氏派宗會長協議會 會長 權重根